

**The Gospel of Mark: Sermon Notes**

Sermon 15

Title: "The parable explained"

Scripture: Mark 4:13-20

Date preached: December 4th 2022

**Scripture: Mark 4:13-20**

**13 And He said to them, "Do you not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ll the parables? 14 The sower sows the word. 15 And these are the ones by the wayside where the word is sown. When they hear, Satan comes immediately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ir hearts. 16 These likewise are the ones sown on stony ground who, when they hear the word, immediately receive it with gladness; 17 and they have no root in themselves, and so endure only for a time. Afterwar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for the word's sake, immediately they stumble. 18 Now these are the ones sown among thorns; *they are* the ones who hear the word, 19 and the cares of this worl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ing in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20 But these are the ones sown on good ground, those who hear the word, accept *it*, and bear fruit: some thirtyfold,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

13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15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16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17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18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지만 19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20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는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You will remember that we looked at the first twelve verses of chapter 4. The events we read about here took place somewhere along the shore of the Sea of Galilee. Although the exact location is not specified it may well have been close to Jesus' home base of Capernaum. As we have seen large crowds were flocking to Jesus. In fact the press upon Him was so great that He got into a boat and preached from there. His method of preaching here is interesting.

These verses mark a radical transition in the teaching approach or style of the Lord Jesus.

Prior to this time He had been speaking plainly and directly to people. But from this point on He will teach and instruct people through the use of parables. A parable as we said last time was “a fictional yet realistic story that illustrates a spiritual truth.”

You may also have heard of a parable described as a “an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Parables are effective teaching tools because a familiar idea is cast beside an unfamiliar idea in such a way that the comparison helps people to better understand the unfamiliar idea. Last time I gave you the example of the parable that the prophet Nathan presented to King David. David in his youth had been a shepherd. He therefore had no difficulty in seeing the injustice done to the poor man deprived of his pet lamb by a rich and powerful man. He was quite rightly angry about it, and wanted to punish the person who had committed this injustice. Then Nathan simply said to David, “*You are the man!*” David realised that the story illustrated his own act of injustice. The parable

served as a mirror that showed him how he had sinned against Uriah.

The use of parables did not originate with Jesus. But He did use them in a very skilful and illuminating way. In the synoptic gospels we have around 30 of Jesus parables recorded.

The parable that Jesus gives he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arable of the sower.” The story is a simple one. A sower or farmer goes out one day to plant their seeds. As they walk along they scatter the seeds over the ground. The scattering is at times a little wayward so that not all of the seeds land in a good place to grow. The parable records seeds landing on four different kinds of soil. The first seed lands by the wayside or on the path. The soil here is hard and compacted because it has been walked upon. Therefore the seeds cannot take root and are eaten by the birds. The second group of seeds land on stony or rocky ground. The soil here is not very deep and so the roots of the seeds are weak. When the hot sun touches the plants they wither and die. The third group of seeds fall among the thorns or weeds. This is a difficult place for the new seeds to grow. They are competing against the stronger thorns and weeds. The young seeds cannot compete and do not flourish. The final group of seeds land on good soil. The seeds are able to take hold and produce a harvest.

Following the telling of the parable the Lord Jesus is approached by His followers. They want to know why He has changed His teaching style, and what the parable means. Jesus tells them that as His faithful loyal followers they are about to be let in on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These mysteries will only be revealed to those on the inside. Those people who have a heart to hear the truth. Those on the outside with hard hearts who have rejected Christ will not have this truth revealed to them. This truth will come to them through the vehicle of the parables.

Today we have the pleasure of having the parable interpreted by Jesus Himself.

오늘의 성경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4 장의 처음 12 절을 봤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은 사건은 갈릴리 바다 기슭 어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에 대한 압박은 너무 커서 그분은 배를 타고 그곳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설교 방식은 흥미롭다.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이나 스타일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허구적이지만 사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로 묘사된 비유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는 친숙한 아이디어를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비교하여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도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제시한 비유의 예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자와 권력자에 의해 애완용 어린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불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화를 냈고, 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고 싶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예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그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비유의 사용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매우 능숙하고 밝은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약 30 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나 농부는 어느 날 씨앗을 심기 위해 밖에 갑니다. 그들이 걸을 때 그들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모든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장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흩뿌리는 방식이 약간 엉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이나

갈기에 착륙합니다. 이곳의 흙은 밟았기 때문에 단단하고 다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먹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씨앗은 돌이나 바위가 많은 땅에 착륙합니다. 이곳의 토양은 깊이 않아 씨앗의 뿌리가 약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식물에 닿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씨는 가시덤불이나 잡초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씨앗이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은 더 강한 가시와 잡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린 씨앗은 경쟁할 수 없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씨앗의 마지막 그룹은 좋은 토양에 착륙합니다. 씨앗을 붙잡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로서 그들이 왕국의 신비 중 일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내면에 있는 자에게만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외부 사람들은 이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비유의 매개체를 통해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기

### **Introduction**

In July of 1799 some of Napoleon's soldiers were digging the foundations for a fort in Rashid in Egypt. As they dug down they found something very interesting. What they had found was part of a stone slab that had once been a part of a bigger slab. But this wasn't any ordinary archaeological find. This stone, or more precisely what was written on the stone would change history. What was written on the slab was a message about King Ptolemy. The message itself, whilst interesting was not that significant. What was significant was how the message was recorded. The message was recorded in three different types of writing. Egyptian hieroglyphs that were used by the high priests, Demotic or everyday Egyptian and Ancient Greek.

At this point in history no one had been able to successfully read Egyptian hieroglyphs. However People did know how to read ancient Greek. Therefore they could use the Greek to help them decipher the hieroglyphs.

So this one lucky archaeological find proved to be the key that enabled historians to read all the other Egyptian hieroglyphs. Today we call this stone slab the Rosetta Stone. You can see it in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The Egyptian hieroglyphs remained a mystery until the Rosetta stone allowed people to understand them. To those with hard hearts, those on the outside Jesus parable would also remained a mystery. However to those on the inside Jesus would be like the Rosetta stone. He would open up to them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Let us see how Jesus explains this parable.

1799 년 7 월 나폴레옹의 병사들 중 일부가 이집트의 라시드에 요새의 기초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헤치면서 그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때 더 큰 판의 일부였던 석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 또는 더 정확하게는 돌에 쓰여진 것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석판에 쓰여진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흥미롭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녹음된 방식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쓰기로 녹음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민중 또는 일상적인 이집트인과 고대 그리스인이 사용했던 이집트 상형 문자, 역사상 이 지역에서 아무도 이집트

□□□□□ □□□□□ □□ □□□□□. 그러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 좋은 고고학적 발견은 역사가들이 다른 모든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한 열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석판을 Rosetta Stone 이라고 부릅니다.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로제타 스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마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걸로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도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제타석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왕국의 신비를 열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봅시다.

**13 And He said to them, “Do you not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ll the parables?”**

Jesus it seems is a little surprised that His followers do not understand the deeper meaning behind the parable. It is arguably the easiest of the parables to comprehend. However I think we can perhaps excuse them for their ignorance. This was the first time Jesus had taught in the way. They were not yet attuned to the deeper spiritual meanings concealed within the parables. This parable is clearly important because Jesus describes it as being the key to understanding all His parables. In fact this is the only parable in Mark's gospel that Jesus takes the time to clearly explain. This makes it worth our time and effort to carefully study and learn what message the parable conveys. Let us then turn now to our Lord's explanation.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비유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들의 무지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비유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 의미에 아직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 명확하게 설명하신 마가복음의 유일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그 비유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자.

**14 The sower sows the word. 15 And these are the ones by the wayside where the word is sown. When they hear, Satan comes immediately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ir hearts.**

Now the key to understanding this parable is to recognise what each element of the story represents. The story has three components. To make it simple to remember they all begin with “S.” We have the **sower**, the **seeds** and the **soil**. The sower is the person sharing or spreading God's Word. In the original parable the sower is the Lord Jesus. Today we might say the sower is a pastor, preacher evangelist or you sharing the gospel. The seed is obviously God's Word, His revelation or His truth. Finally we have the soil. The soil represents the hearts of those who hear and respond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to God's truth. So understanding what the components inside the story represent we can begin our examination.

At the beginning the sower sows or scatters the seeds of God's truth. The disciples had seen the Lord Jesus travelling around Galilee sharing the gospel with all He encountered. The Lord Jesus was tireless in His efforts to tell people about the Kingdom of God. Although He had met with some success, many were only interested in what Jesus could do for them. They wanted the signs and wonders but were apathetic or indifferent towards His real message of truth.

Pastors, bible teachers,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throughout history have met with the same kind of indifference. Take for example [Adoniram Judson \(1788-1850\)](#). He was a Baptist missionary who became the first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y in Burma (Myanmar). After 12 years of hard work and faithful service he had only witnessed 18 people coming to Christ! Judson did not give up and by the time he died he had established 100 churches with over 8,000 members.

The reason that much of our gospel sharing does not produce fruit is two-fold.

The first reason is that some people just have hard and resistant hearts. The fall has produced people who have rebellious hearts towards God and His goodness.

They do not want to submit to God instead they want to be the rulers of their own lives. In the parable the hearts of these people are like the path or wayside that has been walked over until it has become hard and compacted. People with hard hearts like this reject God's truth and never allow it

to take root.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evil one, Satan loves to come along and snatch God's truth away before it can take root. Satan's greatest desire is that we do not form a strong and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When we belong to God He cannot touch us. Therefore he will do all he can to prevent God's truth from entering and transforming our lives. In practical terms there are many ways he does this. He may try to convince us that God could never love or forgive a sinner like us. He may get us to think that Christ' blood isn't sufficient to wash our filthy hearts clean. That's a lie from the pit of hell. Christ's blood is fully sufficient. He may try to persuade us that there isn't really a God. That God was created by men as a way to control people. He may try to have us believe that becoming a Christian is not much fun and that we'd be happier living a life of pleasure and sin. Whatever strategy he employs he is frequently successful. Let us read on.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야기의 각 요소가 나타내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S"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씨 뿌리는 사람과 씨앗과 흙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원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이는 주 예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목사, 설교자 전도자 또는 복음을 나누는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시 또는 진리입니다. 드디어 흙이 생겼습니다. 흙은 하나님의 진리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야기 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뿌리거나 뿌립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목회자, 성경 교사, 선교사, 전도자들은 같은 종류의 무관심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Adoniram Judson(1788-1850)을 살펴봅시다. 그는 버마(미얀마)에서 최초의 미국 개신교 선교사가 된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12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충실히 봉사한 후 그는 18 명이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드슨은 포기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8,000 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100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많은 복음 나눔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완고하고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 □□□ □□□□□□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유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걸어진 길이나 길가와 같아서 굳어지고 굳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가와서 빼앗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가 이것을 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결코 사랑하거나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합니다. 그는 실제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괴롭고 좌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그는 종종 성공합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16 These likewise are the ones sown on stony ground who, when they hear the word, immediately receive it with gladness; 17 and they have no root in themselves, and so endure only for a time. Afterwar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for the word's sake, immediately they stumble.**

Some of God's truth falls on people whose hearts are like the soil that lies on stony ground. This is good soil but it lacks depth. It's what we describe in gardening terms as being topsoil. The seed is able to take root and grow but soon it hits rock and can go no deeper. When these people hear the truth they are initially excited and receptive. They receive it with gladness and it takes root. However their enthusiasm for the Word is short lived. Soon their passion wanes and their hearts become indifferen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persecution or hardship arises. When people realise that it is not easy to be a Christian they fall away and their passion dissipates. Some people only thrive in the excitement and passion of their immediate conversion. Once that passion subsides, and the reality of the Christian life becomes apparent their commitment and attention also withers.

I am afraid that I have met many people like this over the years. Some churches even encourage such people with emotional sermons and altar calls. I have to confess that I am very sceptical of the claims made by such churches about how many converts they are making. It may well be true that several hundred people were emotionally impacted and came to the front to make a profession of faith. But I do wonder if we found those people several months later whether they were still walking faithfully with Christ. God can, and does work through such means but I'm much more in favour of investing truth into people over a long period of time. Let's aim God's truth at heart and mind and not only the heart which is so easily swayed by emotion.

Many Christians around the world suffer tremendous hardship to follow Christ. Why do Christians in North Korea face torture, prison and death for Christ. Because they know His truth to be true and nothing can dissuade them from their rock solid faith. Let us move on.

하나님의 진리 중 일부는 마음이 돌발 위에 있는 흙과 같은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좋은 토양이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예 용어로 표토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지만 곧 바위에 부딪혀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들을 때 처음에는 흥분하고 수용적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그들의 열정은 식고 마음은 무관심해집니다. 박해나 고난이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타락하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개종에 대한 흥분과 열정에서만 반창합니다. 그 열정이 가리웠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면 그들의 헌신과 관심도 사들여 버립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두렵다. 어떤 교회에서는 감정적인 설교와 제단 부르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개종자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아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충실하게 걷고 있는지 몇 달 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수단을 통해 알하실 수 있고 또 알려지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진리를 투자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마음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도록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과 감옥과 죽음을 당하는가? 그들은 그분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에서 그들을 단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18 Now these are the ones sown among thorns; *they are* the ones who hear the word, 19 and the cares of this worl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ing in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The next kind of seed was sown in thorny or weed choked ground. The soil here is good soil. In fact we might describe it as being too good or too fertile because whatever is planted or finds its way here grows well.

If you've ever tended a garden you will know just how dogged and persistent weeds can be. I remember as a child being sent out into the garden to do some weeding. I have to confess that it was a job I never much enjoyed. It did not seem like a great deal of time had passed before I was sent out again to weed the same patch of garden.

So the human heart that is in view here is able to accept and nourish the seed of God's truth. God's Word of truth takes a hold and can flourish. There is a serious problem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in this crowded heart. What is in view here is the kind of person has many issues, interests or concerns.

Perhaps they would like to devote themselves to the Kingdom but the things of this world have them hooked. In truth what is being described here is someone who has not successfully made a break with the world. Someone who is straddling the fence with one foot in the spiritual world and the other in the material world. Someone who is chasing after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not the things of God.

This kind of person is typified by having many cares and concerns. Some of these may appear on the surface to be legitimate. Perhaps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career prospects or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These are all things that we worry about from time to time. This can create two problems. The first is that these cares and concerns take priority in our lives. The second is that we fail to trust that God is watching over us and there is no real reason for us to worry. In either case we push God to the margins and let our concerns dominate.

People with these kinds of hearts are also motivated by material or fleshly things. The thought that if you have just a little more and you will be happy and content is so appealing to human beings. At the present time you may not be happy and you feel unfulfilled. But just imagine how happy you would be with ....., you can fill in the blank here as it applies to you. A new apartment, a new job, a new car, a foreign holiday, a new smart phone, a new husband or wife. Making us feel dissatisfied with what we have, and covetous of others and what they have is one of Satan's favourite tricks.

Another concern for these people the Lord tells us is their desire for riches. This manifests itself in many ways. Perhaps with a focus on how to make better investments or dabble in the stock market. Perhaps in the need to always be looking for better paid jobs or getting second or third jobs. It may show itself in the desire to acquire material things. They may be considering how they will move up the property ladder. They may have made an idol out of wealth or material success. There may be nothing wrong with some of these things if done in moderation. It's not sinful trying to make good investment or wanting to provide materially for our families. But the problem in this case is that these fleshly desires have choked out God's truth. This kind of person is more interested in the things of life than the things of God.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we cannot have two master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att 6:24)**

If God is not our priority then something else is and this then becomes our focus of attention. Or to put it more biblically whatever has our attention becomes our idol. The point is that in such a crowded heart there is no room for the gospel to grow and produce fruit. Let us turn next to the final set of seeds.

**다음 종류의 씨는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막힌 땅에 뿌렸습니다. 이곳의 흙은 좋은 흙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곳에 심거나 발간한 모든 것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거나 너무 비옥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돌본 적이 있다면 잡초가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잡초를 뽑기 위해 정원으로 보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별로 즐기지 못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같은 밭의 잡초를 뽑으러 보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받아**

들이고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굳게 붙잡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복잡한 마음에 너무 많은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문제, 관심 또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국에 헌신하고 싶지만 이 세상의 일에 매료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세상과 단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밭은 영의 세계, 다른 한 밭은 물질 세계의 울타리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전형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건강, 직업 전망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때때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염려와 염려가 우리 삶에서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할 진정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신을 현재까지 밀어붙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물질적, 육신적 동기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에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행복하지 않고 성취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해보십시오. 새 아파트, 새 직장, 새 차, 외국 휴가, 새 스마트폰, 새 남편 또는 아내.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것을 탐내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부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더 나은 투자를 하거나 주식 시장에 손을 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아마도 항상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찾거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직업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나 물질적 성공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이러한 것들 중 일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우리 가족을 위해 물질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진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생명의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주인을 기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는 한쪽을 사랑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에 충성하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24)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또는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요점은 이렇게 확한 마음에는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앗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 But these are the ones sown on good ground, those who hear the word, accept *it*, and bear fruit: some thirtyfold,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

We know from hearing farmers discuss crops that there are many variable components to the successful growing of a crop. The soil needs to be good and full of nutrients. The temperature must be just right, not too hot or too cold. There needs to be an appropriate level of rainfall, again not too much and definitely not too little. Pests, such as birds and insects need to be kept off the crop. It is not an easy job for a farmer to produce a good harvest.

In the parable some of the scattered seed lands in the ideal place. It lands on soil that is good and receptive to that seed. God's precious Word alights in hearts that are joyful and excited to hear and receive it. People with these hearts recognise the value of the gift they have received. They nurture and protect it from being snatched away by the evil one. They do not allow their enthusiasm to wane when difficulties arise. And finally such people do not allow the cares, concerns or desires of this world to choke it out.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note the outcome of God's Word being heard, accepted and lived out. The outcome is that fruit is produced. This is not something that occasionally occurs when a person



is transformed by God's Word. It always occurs. If there is no fruit being produced we have to ask whether the Word has properly or truly been received. Has this person really been born again?

But we also have to note something else very interesting. The fruit produced is not universal. It's not all the same. Some people produce a great deal of fruit, some a little less. This is how Warren Wiersbie phrases it in his bible commentary.

*“Not all true believers are equally as productive, but from every genuine Christian's life, there will be some evidence of spiritual fruit.”*

Now we must be very careful here that we do not fall into one of two traps. It is easy for those who are producing a lot fruit to look down upon those producing less. For such people to feel superior or proud about what they are accomplishing. The second trap one might fall into is for those producing less to feel inferior. Neither of these traps are good or profitable to fall into. All believer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God's kingdom. We might think of it as being like an old wind up watch. If you've ever looked inside an old watch or clock you will know that the mechanism inside is very intricate and delicate. There are lots of cogs and wheels or all sizes carefully assembled to work together. Every part is significant and important. If just one small cog falls out of place the watch stops working. God's Kingdom functions in a similar way. All those God has called work together. Some have big tasks to do others have smaller tasks. But all must work together to please God.

Let us conclude our study of the parable of the sower by summarizing the point Jesus is making. The first point is this. A person's reception of God's Word is determined by the condition of their heart. All people can hear the gospel message but it is their hearts that will determine what they do with the message. The second point is that hearing the gospel message is just the first step. A person who is truly saved will go on to demonstrate that reality through the fruit or good works they produce. May our faith and our lives exemplify the "good soil" in the Parable of the Sower.

우리는 농부들이 작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작물의 성공적인 재배에 많은 가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양은 좋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강우량이 있어야 합니다. 새와 곤충과 같은 해충은 작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어떤 흩어진 씨는 이상적인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는 토양에 착륙합니다. 하나님의 구한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는 기쁨과 설렘의 마음에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선물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열정이 식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염려, 염려 또는 욕망이 그것을 질식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발생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참으로 받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 □□□□□ □□□□□ .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생산합니다. 이것이 Warren Wiersbie 가 그의 성경 주석에서 표현한 방식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가 똑같이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열매의 증거가 되십시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열매를 적게 맺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우월하거나 자랑스러워하게 되다. 두 번째 함정은 덜 생산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 중 어느 것도 빠지기에는 좋지 않고,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된 시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시계나 시계 내부부를 본 적이 있다면 내부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톱니와 바퀴 또는 모든 크기가 함께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조립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작은 톱니 하나가 제자리에서 빠지면 시계가 작동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요약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연구를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맺는 열매나 선행으로 그 실재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Don't be discouraged

When I talk to people about this church I am often asked about the attendance. For some reason that seems to be the metric by which a church's success or otherwise is measured. I don't think it's a fair way to judge a ministry but that is the way things are typically measured. I tell them that I have my regular few attendees.

Occasionally a new person will visit, but they seldom seem to stay long. I am often asked if this situation discourages me. People say to me, "You invest a lot of time in preparing sermons and bible studies and so few people come and listen. Isn't that frustrating or discouraging?" The answer is no, and here's why. My job is just to faithfully serve those the Lord has put before me. The Lord in His grace has given me a small flock to care for. I am simply a shepherd and not the master of the sheep. If the Lord wants me to have a bigger flock then that will be His decision. If not then I trust that He has made the right decision. I don't feel resentful that I am not pastoring a mega church.

The parable of the sower helps to moderate our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God's Kingdom.

When you think about it just 25% of the seeds produced a harvest. 75% proved to be a failure.

Some people might be greatly discouraged by such odds. If you shared the gospel with 100 people 75 might ignore your words and walk away. I hope that you are not discouraged or put off wanting to share the good news. Remember we don't know who will make up that 25%. We also do not know what role the people we speak to will go on to play in God's Kingdom.

Perhaps the person you told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ll go on to write a world changing book, or become a missionary, or teach thousands of children in Sunday school. That's an exciting thought. So don't be discouraged and take every chance you have to share the good news.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종종 출석률에 대해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것은 교회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보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역을 판단하는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소수의 참석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새로운 사람이 방문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나를 낙담시키는지 자주 묻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은 설교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와서 듣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답답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내 앞에 두신 자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나에게 돌볼 작은 무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 목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더 많은 양떼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는다는 것에 원망을 느끼지 않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5%만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75%

는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확률에 크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100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75 명 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낙담하거나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25%를 차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책을 쓰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주일학교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그러 므로 낙담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 2 What hinders our fruitfulness

In the parable of the sower we saw that the state of a person's "soil;" their heart determines how receptive they will be of God's Word. We also saw that there were an number of things external to a persons heart that also impacted how they received God's Word. It is helpful then I think to consider what things may hinder our fruitfulness.

Even those who soil is good and who have joyfully accepted God's Word will at times find their fruitfulness affected. We are all at times deceived or led astray by Satan, or one of his demon's lies. We all have times when thoughts or ideas that are clearly not from God intrude. At such times we need to turn back to God and tell Satan that we will not listen to his deceptions.

Also at times we stumble or falter because of difficult circumstances. Here in Korea we are not really persecuted for our faith. But there may be times or situations when our faith is tested. How do we deal with such situations? Do we allow the situation to hinder our faith or do we turn to Christ and remain faithful.

What about the cares, concerns or fleshly desires of this world. How easy it is for us to get caught up in chasing after these shiny trinkets. How foolish we sometimes are when we think that real joy and happiness can be found in the things of this world. How our fruitfulness can negatively be impacted by our desires.

So let us carefully examine ourselves. What are their things in our lives that need attention. Let us identify them now, take them to the Lord and ask for His transforming power to make those necessary changes. Let us seek to be as fruitful as we possibly can to please our Lord and bring Him glory.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사람의 “흉”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마음 외적인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결실을 방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양을 잘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때때로 그들의 열매가 영향을 받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사탄이나 그의 악마의 거짓말 중 하나에 속거나 잘못 인도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생각이나 생각이 침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 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실제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 □□□ □□□□□ □□□□□□□□□□  
 께로 돌아가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 염려, 육신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반짝이는 장신구를 쫓는 일에 후발라기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세상의 것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실이 우리의 욕망에 의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삶에서 주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식별하고 주님께 데려가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